

한국어 교육에서의 파생어휘 교육

—‘-스롭-, -답-, -롭-’ 파생 형용사를 중심으로

김 인 균

<차 례>

1. 서론
2. 형용사 파생 접미사 ‘-스롭-’, ‘-답-’, ‘-롭-’
3. ‘-스롭-, -답-, -롭-’ 접미사와 파생 형용사의 교육 방안
4. 결론

1. 서론

요즘의 한국어 교육은 문법 중심의 교수 방법에서 탈피하여 의사소통 중심과 학습자 중심의 교수 방법을 표방하면서 더 나아가 말하기·듣기·쓰기·읽기·문법 등의 기능별 단위 교수법을 탈피한 통합교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방법론의 발전과 무관하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교육은 체계적인 학습 및 연구 대상으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즉 어휘를 단순히 암기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아직 한국어 교육에서는 어휘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어휘는 학습 내용 과정에서 학습자가 스스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KRF-2002-074-AM1058)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 논문을 자세히 읽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세 분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국립국어연구원 선임연구원

로 익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어휘 교육에 관한 연구도 단순히 기초 어휘의 설정 및 단계에 따른 어휘 난이도의 분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한 언어의 효율적인 어휘 교육은 그 어휘에 대한 지식 곧, 그 의미와 형태,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에 우선 난이도와 빈도수를 고려하여 기초 어휘, 기본 어휘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단일어를 어휘 교육과 그 연구의 중심으로 본 기존의 방법론에서 탈피하여, 복합어(합성어와 파생어)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교수자 및 학습자의 어휘·문법 지식에 기초한 파생어휘 교육에 집중하고자 한다. 파생 접미사는 접두사와 함께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 내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접미사의 결합 양상과 의미 및 기능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교육에 임한다면 한국어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일환으로 2장에서는 먼저 국어학적인 관점에서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스럽-, -답-, -롭-’을 비교·대조하여 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교수자 및 학습자의 어휘 및 어휘 형성(확장)의 이해도를 높이하고자 한다. 즉, 형용사 파생 접미사 ‘-스럽-, -답-, -롭-’의 분포와 의미 및 용법을 살펴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따른 교차성 범위를 제시하여 한국어 교수자의 조어법 지식 및 학습자 교수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 4장에서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이들 파생 접미사류와 그 결합형인 형용사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수할 것인가라는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간략하게나마 교수에 보탬이 될 교수 요목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¹⁾

1) 한국어 교육 방법론은, 즉 이 논문과 관련해서, 한국어 교육에서 어떻게 이들 접미사류를 가르칠 것이냐 또는 어기와 접미사를 분리하여 가르쳐야 하느냐 통째로 가르쳐야 하느냐는 실제 교육 현장에 있지 않는 필자가 언급하기에 부족하리란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필자의 주된 관심사는, 이들 접미사와 파생형에 대하여 한국어 교수자가 분명히 한국어 조어법의 한 지식으로서 알고 있어야 하며, 한국어 학

파생 접미사 ‘-스럽-’, ‘-답-’, ‘-롭-’에 의해 만들어지는 형용사는 한국어 교육용으로서의 기본적인 어휘로 기능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일례로 조현용(2000)에서 한국어 교육용 기본 어휘 시안으로 725개의 어휘를 제시하였는데, 제시된 형용사 총 81개 중 ‘-스럽-’에 의한 파생 형용사는 하나도 없고 ‘-답-’, ‘-롭-’에 의한 파생 형용사는 ‘아름답다’와 ‘외롭다’ 각각 1개뿐이다. 그렇다면 한국어 어휘 교육의 대상으로서 ‘-스럽-’, ‘-답-’, ‘-롭-’ 파생 형용사를 배제해도 무방한가? 그렇지 않다. 언어는 다양한 상황의 올바른 표현을 그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외국어 학습자는 해당 언어의 의사소통 도구인 어휘에 대하여 다의어적인 면과 어휘 형성적인 면을 모두 지식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그 언어의 교수자에게 더욱 더 선결되는 것으로서 단일어 뿐만 아니라 복합어(합성어와 파생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²⁾ 이에 본고는 ‘-스럽-’, ‘-답-’, ‘-롭-’ 파생 형용사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 먼저 ‘-스럽-’, ‘-답-’, ‘-롭-’ 파생 형용사의 예들을 몇 개의 문헌에서 확인해 보자.³⁾

습자도 분명 관심과 의문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파생어휘 교수 내용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국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할 것인가라는 교육 방법 및 교육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에 본고는 일부 가능성 있는 대안을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이들 파생 접미사류와 그 결합형인 형용사류에 대한 지식을 단계별로 위계화·세목화한 교수요목을 간략하게 제시해 보고 현장에 서 본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한국어 어휘·문법 교육 방법론은 후고를 기약한다.

2) 김광해(2003: 9)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언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는 당위성에 부합되지 못한 교육이 각급의 실제 현장 교육의 현실이다.

3) 아래의 문헌 외에 한국어 교수·학습 현장에서 문법 교재로 쓰이고 있는 임호빈·홍경표·장숙인(1997)과 박영순(2001)에서는 각각 아래와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 (1) 정호성 · 김인균 · 이은정(2001), 주요 어휘 용례 수집 및 정리-형용사편
-, 국립국어연구원.(주요 형용사수 총 1123개)

가. ‘-스럽-’(56개)

가증스럽다, 감격스럽다, 갑작스럽다, 거추장스럽다, 걱정스럽다, 경망스럽다, 고생스럽다, 고집스럽다, 고통스럽다, 곤혹스럽다, 극성스럽다, 급작스럽다, 다행스럽다, 번덕스럽다, 부담스럽다, 사랑스럽다, 사치스럽다, 새삼스럽다, 송구스럽다, 수다스럽다, 수치스럽다, 시원스럽다, 쑥스럽다, 양칼스럽다, 억척스럽다, 외람스럽다, 요란스럽다, 우스꽝스럽다, 우악스럽다, 원망스럽다, 유감스럽다, 유난스럽다, 을씨년스럽다, 의문스럽다, 의심스럽다, 이상스럽다, 익살스럽다, 자랑스럽다, 자연스럽다, 정성스럽다, 조심스럽다, 짜증스럽다, 창피스럽다, 천진스럽다, 촌스럽다, 치욕스럽다, 탐스럽다, 탐욕스럽다, 탐탁스럽다, 태평스럽다, 투박스럽다, 통명스럽다, 한심스럽다, 호들갑스럽다, 혼란스럽다, 후회스럽다

-
- i) 가. 사랑스럽다, 자랑스럽다, 걱정스럽다, 조심스럽다, 별스럽다, 번덕스럽다
나. 학생답다, 여자답다, 군인답다, 신사답다, 교육자답다
다. 자유롭다, 신기롭다, 해롭다, 공교롭다, 슬기롭다, 이롭다, 향기롭다
- ii) 가. 다정스럽다, 인정스럽다, 복스럽다, 번덕스럽다, 익살스럽다, 탐스럽다
나. 대장부답다, 사람답다, 어머니답다, 정치가답다, 학자답다
다. 자유롭다, 평화롭다, 여유롭다, 풍요롭다, 한가롭다

그런데, 이들 두 문헌과 (1), (2), (3)의 세 문헌에 제시된 예들을 살펴보면 ‘-답-’ 파생형 어휘 예들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참고로, 국립국어연구원에서 1999년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현대 한국어 표준어로서 ‘-스럽-’ 파생 형용사는 710개, ‘-답-’ 파생 형용사는 8개, ‘-롭-’ 파생 형용사는 97개가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어로서 ‘각박스럽다, 강렬스럽다, 거깃스럽다, 고독스럽다, 다양스럽다, 둔탁스럽다, 모험스럽다, 못마땅스럽다, 분통스럽다, 불손스럽다, 비겁스럽다, 수심스럽다, 시름스럽다, 야비스럽다, 어수선스럽다, 우곤스럽다, 유쾌스럽다, 죄악스럽다, 처량스럽다, 친근스럽다, 후덕스럽다, ‘감화롭다, 번뇌롭다, 별미롭다, 부유롭다, 부자유롭다, 영채롭다, 예지롭다, 요기롭다, 운치롭다, 정기롭다, 취미롭다, 친애롭다, 화기롭다’ 등의 ‘-스럽-’, ‘-롭-’ 파생 형용사가 실려 있다.

나. ‘-답-’(3개)

아름답다, 정답다, 참답다

다. ‘-롭-’(34개)

가소롭다, 감미롭다, 경이롭다, 공교롭다, 괴롭다, 까다롭다, 날카롭다,
다채롭다, 단조롭다, 대수롭다, 번거롭다, 사사롭다, 새롭다, 순조롭다,
슬기롭다, 신비롭다, 애처롭다, 예사롭다, 외롭다, 위태롭다, 은혜롭다,
의롭다, 이롭다, 자애롭다, 자유롭다, 조화롭다, 지혜롭다, 평화롭다, 풍
요롭다, 한가롭다, 해롭다, 향기롭다, 호화롭다, 흥미롭다

(2) 조남호(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⁴⁾

가. ‘-스럽-’

격정스럽다, 사랑스럽다, 자랑스럽다, 자연스럽다, 조심스럽다(2단계)/
갑작스럽다, 고급스럽다, 고통스럽다, 만족스럽다, 짜증스럽다, 촌스럽
다(3단계)(11개)

나. ‘-답-’

아름답다(1단계)(1개)

다. ‘-롭-’

외롭다, 자유롭다(2단계)/날카롭다, 번거롭다, 새롭다, 이롭다, 평화롭다,
해롭다, 흥미롭다(3단계)(9개)

(3) 김광해(2003),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박이정.⁵⁾

4) 이 연구 보고서에서는 한국어 학습용 어휘로 총 5,965개를 제시하고 학습자의 학
습 단계에 따라 1단계 982개, 2단계 2,111개, 3단계 2,872개를 선정하였다. 이 중 형
용사는 총 376개인데, 1단계 75개, 2단계 132개, 3단계 169개를 선정·제시하였다.

5) 여기서는 한국어 교육용 어휘를 교육 단계에 따라 초급(1단계) 1,845개, 중급(2단
계) 4,245개, 상급(3·4단계) 8,358개, 고급(5·6단계) 19,377개 등 총 33,825개 선정·
제시하였다. 아래 예 중 ‘믿음직스레’, ‘한가로이’처럼 본래의 ‘믿음직스럽다’, ‘한가
롭다’ 형용사는 없고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부사 형태만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단계에 포함하여 보이기로 한다.

가. ‘-스럽-’

격정스럽다, 새삼스럽다, 송구스럽다, 쑥스럽다, 원망스럽다, 자랑스럽다, 자연스럽다, 조심스럽다, 통명스럽다(중급-9개)/감격스럽다, 갑작스럽다, 고생스럽다, 고통스럽다, 급작스럽다, 다정스럽다, 만족스럽다, 변덕스럽다, 복스럽다, 불만스럽다, 뻔뻔스럽다, 사랑스럽다, 사치스럽다, 소란스럽다, 시원스럽다, 신비스럽다, 악착스럽다, 어른스럽다, 영광스럽다, 요란스럽다, 용맹스럽다, 의심스럽다, 이상스럽다, 자유스럽다, 정성스럽다, 충성스럽다, 평화스럽다, 호화스럽다, 혼란스럽다, (믿음직스레)(상급-30개)/가증스럽다, 감탄스럽다, 경사스럽다, 곤혹스럽다, 극성스럽다, 다행스럽다, 먹음직스럽다, 미련스럽다, 부자연스럽다, 수고스럽다, 요사스럽다, 우스꽝스럽다, 유난스럽다, 의문스럽다, 자비스럽다, 죄송스럽다, 짜증스럽다, 죄스럽다, 촌스럽다, 한심스럽다, 혐오스럽다, 후회스럽다, …(개탄스레, 거북스레, 곤란스레, 대답스레, 불편스레, 태평스레, 투박스레, 황송스레, …)(고급-126개)

나. ‘-답-’

아름답다(초급)/정답다(중급)/참답다(상급)(3개)

다. ‘-롭-’

새롭다, 외롭다(초급-2개)/공교롭다, 괴롭다, 까다롭다, 날카롭다, 번거롭다, 순조롭다, 이롭다, 자유롭다, 해롭다, 흥미롭다(중급-10개)/다채롭다, 보배롭다, 사사롭다, 신비롭다, 애처롭다, 위태롭다, 정의롭다, 평화롭다, 호화롭다, (한가로이)(상급-10개)/가소롭다, 감미롭다, 경이롭다, 다사롭다, 대수롭다, 따사롭다, 상서롭다, 수고롭다, 영예롭다, 영화롭다, 의롭다, 이채롭다, 자비롭다, 자애롭다, 조화롭다, 중요롭다, 풍요롭다, (경사로이, 단조로이, 신기로이, 신기로이, 지혜로이, 향기로이)(고급-23개)

위 문헌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스럽-’, ‘-답-’, ‘-롭-’ 파생 형용사는 그렇게 빈도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어떠한 대상의 다양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한국어의 중요한 형용사류이다.

2. 형용사 파생 접미사 ‘-스럽-’, ‘-답-’, ‘-롭-’

그럼 먼저 파생 접미사 ‘-스럽-’, ‘-답-’, ‘-롭-’이 각각 선행 어기와 어떠한 분포적 양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스럽-’은 18세기경에 와서 등장한 파생 접미사로서(이기문(1972: 207), 강은국(1993: 419-24)) 현대 한국어에서 사람(어른스럽다, 바보스럽다), 사물(홍물스럽다, 촌스럽다), 사건(걱정스럽다, 사랑스럽다), 상태(만족스럽다, 고통스럽다), 추상물 명사(자연스럽다, 고급스럽다) 등 모든 유형의 명사류를 어기로 하여 형용사를 만드는 가장 생산적인 파생 접미사이다.⁶⁾ ‘-스럽-’은 자음으로 끝나는 어기와 결합한다는 것이 하나의 음운론적인 제약이라 할 수 있으나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롭-’과 마찬가지로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와도 결합하는 예가 보이기도 하여 그 생산성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스럽-’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다음의 예를 보자.

(4) 가. 그 아이는 어른스럽다.

나. ^{??}그 어른은 어른스럽다.

다. *그 아이는 어른이다.

라. 그 아이가 어른이 아니지만 하는 행동이 어른스럽다.

(5) 가. 그 아이는 바보스럽다.

나. 그 아이가 바보는 아니지만 하는 짓이 바보스럽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럽-’은 사람 명사를 어기로 할 때 ‘X는 Y스럽다’가 ‘X가 Y는 아니다’를 전제하여 ‘선행 어기의 속성에 가깝게

6) 김인균(2002: 57)에서는 한국어 명사를 ‘사람, 사물, 사건, 상태, 추상물, 위치’ 명사로 의미 분류해 보았다. 이하의 명사 의미 부류도 이에 준한다.

접근했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심재기(1982: 381-2), 김창섭(1996: 177-8)). 그러나 일반적으로 '-스럽-' 형용사의 사전 뜻풀이를 보면 '-(느낌/면/점)이 있다'로 되어 있으면서 '냉정하다/냉정스럽다', '한가하다/한가스럽다', '다정하다/다정스럽다' 등처럼 '-하-' 형용사와 대비를 이루어 어떠한 의미가 부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스럽-'은 '선행 어기의 속성에 가깝게 접근했음'이라는 의미와 함께 '그 판단은 주체의 주관적인 가치 평가에 의지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창섭(1996: 179); 송철의(1992: 204); 하치근(1993: 299)).

'-답-'을 일종의 동음이의어적인 것으로 보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다(김창섭(1984: 1996); 송철의(1992)). 즉 현대 한국어의 '-답-'은 명사구에 접미하여 형용사구를 형성하는 '-답₁-'과 명사나 어근에 접미하여 형용사를 형성하는 파생 접미사 '-답₂-'로 구분된다. 이로써 단어 형성의 기능을 가지는 경우는 위에서 제시된 '-답₂-'인데, 자음으로 끝나는 어기와만 결합하여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와 결합하는 '-롭-'과 이형태를 이루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새로 형용사를 형성하지 못한다.⁷⁾ 그러나 아래 (6)과 같이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와도 결합할 수 있고 그 어기가 모든 종류의 명사구인 '-답₁-'은 계사 '-이-'나 형용사 '-갈-'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결국 파생 접미사 '-답₂-'는 중세국어의 '-듭-'에서 이어지는 형태로 '-롭-'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 이해하여 함께 다룰 수 있지만, '-답₁-'은 조어법 소관이 아니므로 우리의 논의에서 제외해도 무방하다.⁸⁾(그러나 뒤에서 '-스럽-'과 관련하여

7) 현대 한국어에서 '-답₂-' 파생 형용사는 '꽃답다, 시답다, 실답다, 아름답다, 예답다, 예모답다, 정답다, 참답다' 등 총 8개가 전부이다. 이 '-답₂-'는 '꽃답다'를 제외하면 모두 추상물 명사를 어기로 취한다. '꽃답다'의 경우 '꽃'이라는 사물 명사를 어기로 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꽃'의 일부 속성인 '향기' 또는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로 은유적 확대를 겪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의미를 언급하게 될 것이다.)

- (6) 가. 그는 [대통령 후보]답지 않은 언행을 일삼는다.(사람)
 나. [평소의 너]답지 않게 그런 말을 하니?(사람)
 다. 그 대학교는 [명문의 사학]답게 내실 있는 교육을 한다.(사물)
 라. 우리 개는 [명견인 진돗개]답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인다.(사물)
 마. 김 교수의 집은 [학자가 사는 집]답게 책이 많다.(사물)
 바. 국가 지원을 받는 연구야말로 [연구]답게 해야 한다.(사건)
 사. [고생 끝에 얻은 행복]답게 최대한 누려라.(상태)
 아. 이곳은 [술집 분위기]답지 않게 조용하여 참 좋다.(추상물)
 자.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다운 증거를 찾아라.(추상물)
 차. [무더운 한여름]답지 않게 오늘은 시원하다.(위치)
 카. [새 정권 초기]답게 공무원들의 기강이 바로서 있다.(위치)
 타. 철수는 [[우리 학교 [대학생]답/이/같]다.
 파. 우리 아들이 [이제 제법 [[군인]답/이/같]구나.

형용사 파생 접미사 ‘-롭-’은 ‘-스럽-’에 비해 생산성이 낮지만 ‘-답2-’와 달리 공식적으로 생산력을 갖는다. 즉 ‘-답2-’와 ‘-롭-’은 중세국어에 서부터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이면서도 현대 한국어에서는 ‘-롭-’만이 모음으로 끝나는 상태·추상물 명사나 어근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용사를 만들고 있다.⁹⁾ 결국 ‘-롭-’은 이러한 음운론적, 의미론적 제약에 의

8) ‘-답1-’과 ‘-답2-’가 기원적으로 같았느냐는 국어학계에서 쉽게 결론짓지 못하고 있다. 즉, 중세국어 ‘-답-’과 ‘-답2-’를 쌍형어, 형태론적 이형태(안병희(1978: 72))나 수의적인 변이형(이현규(1982)) 또는 거의 같은 뜻을 가진 파생 접미사(허웅(1975: 203))로 본 논의가 있는가 하면, 역사적인 발달 과정이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답1-’과 ‘-답2-’를 중세국어의 ‘-답-’과 ‘-답2-’, ‘-당-’의 관계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김창섭(1996: 168), 그리고 일부 예를 제외하면 중세국어의 ‘-답-’과 ‘-답2-’는 각각 현대 한국어의 ‘-답1-’과 ‘-답2-’에 이어진다고 본 구본관(1998: 186)이 있다.

9) ‘-롭-’ 형용사 중 ‘보배롭다’가 유일하게 사물 명사를 어기로 취한 경우이다. 이는 ‘꽃답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배’의 일부 속성인 ‘가치’ 또는 ‘귀중함’이라는 의

해 ‘-스럽-’만큼 생산성을 갖지 못한다 하겠다. 그러면 ‘-답₂-/-롭-’의 의미는 무엇인가? 위의 ‘-답₂-/-롭-’ 파생 형용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답₂-/-롭-’은 ‘선행 어기의 속성이 풍부함’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롭-’ 형용사들의 사전 뜻풀이를 보면 일반적으로 ‘-(느낌/면/점)이 있다’로 되어 있으면서 ‘신비하다/신비롭다’, ‘한가하다/한가롭다’, ‘정교하다/정교롭다’ 등처럼 ‘-하-’ 형용사와 대비를 이루어 ‘그 판단은 주체의 주관적인 가치 평가에 의지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창섭(1984: 150, 1996: 175); 송철의(1992: 209); 하치근(1993: 296-7)).

결국 ‘-스럽-’은 ‘선행 어기의 속성에 가깝게 접근했음’을 의미하고 ‘-답₂-/-롭-’은 ‘선행 어기의 속성이 풍부함’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접미사들이 공히 그 선행 어기에 대하여 주체가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양태적 의미를 내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제 앞에서 살핀 형용사 파생 접미사 ‘-스럽-’, ‘-답-’, ‘-롭-’의 분포, 의미와 관련하여 이들 의미의 상관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고 교차성 범위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스럽-’은 한국어의 형용사 파생 접미사 중 가장 생산성이 높은 접미사이다. 18세기경에 와서 등장한 ‘-스럽-’은 ‘-답₂-/-롭-’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면서 생산성을 획득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현대에 와서는 ‘-답₂-/-롭-’의 생산성이 약화되었다. 즉 이들 ‘-스럽-’과 ‘-답₂-/-롭-’은 의미와 기능이 공유되는 특성을 많이 가져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지니는데, 그러면서도 그 차이도 분명 보여 별개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도 한다. 앞에서 ‘-스럽-’은 ‘선행 어기의 속성에 가깝게 접근했음’을 의미하고 ‘-답₂-/-롭-’은 ‘선행 어기의 속성이 풍부함’을 의미하지만, 이들 접미사가 공히 그 선행 어기에 대하여 주체가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미로 은유적 확대를 겪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는 양태적 의미를 내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즉 ‘-스럽-’과 ‘-답₂-/-롭-’은 주체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하여 각각 다른 의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스럽-’과 ‘-답₂-/-롭-’이 별다른 의미 차이 없이 서로 교체되어 나타나 매우 흥미롭다. 사실 이들 예들은 원래 ‘-답₂-/-롭-’ 파생어만 가능했던 것인데, ‘-스럽-’의 생산성이 확대되어 ‘-스럽-’ 파생어가 새로이 등장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¹⁰⁾

(7) 경사롭다/경사스럽다, 다사롭다/다사스럽다, 명예롭다/명예스럽다, 변화롭다/변화스럽다, 보배롭다/보배스럽다, 상서롭다/상서스럽다, 수고롭다/수고스럽다, 신비롭다/신비스럽다, 영예롭다/영예스럽다, 영화롭다/영화스럽다, 예사롭다/예사스럽다, 인자롭다/인자스럽다, 자비롭다/자비스럽다, 자유롭다/자유스럽다, 재미롭다/재미스럽다, 저주롭다/저주스럽다, 초조롭다/초조스럽다, 평화롭다/평화스럽다, 폐롭다/폐스럽다, 풍아롭다/풍아스럽다, 한가롭다/한가스럽다, 호기롭다/호기스럽다, 호사롭다/호사스럽다, 호화롭다/호화스럽다(24개)

(8) 참답다/참스럽다(보기에 참된 데가 있다)

또한 (9)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대체로 자음으로 끝나는 어기와 결합하는 ‘-스럽-’이 ‘-롭-’과 마찬가지로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와 결합한 예가 보이는데, ‘-롭-’ 파생어가 되어도 무방할 것들이 ‘-스럽-’의 생산성에 밀려 ‘-스럽-’ 파생어가 된 경우라 할 수 있어 더욱 흥미롭다.

10) 그러나 이들 예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아래 예 중 ‘상서롭다/상서스럽다, 인자롭다/인자스럽다, 평화롭다/평화스럽다, 호사롭다/호사스럽다’만을 동의어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각각 그 의미 영역이 존재한다고 파악하여 뜻풀이를 달리 하고 있다. 『금성』, 『한글』 사전에서도 ‘자유롭다/자유스럽다, 자비롭다/자비스럽다, 수고롭다/수고스럽다’ 등을 그 뜻풀이를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민현식(2000: 8)).

(9) 간사스럽다, 괴기스럽다, 구차스럽다, 낭패스럽다, 면구스럽다, 바보스럽다, 불미스럽다, 사치스럽다, 수다스럽다, 애교스럽다, 억지스럽다, 염려스럽다, 예스럽다, 요괴스럽다, 요사스럽다, 우려스럽다, 재미스럽다, 창피스럽다, 치사스럽다, 혐오스럽다, 후회스럽다, …

여기서 하나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답₁-’의 의미와 용법이다. 앞에서 사람 명사를 여기로 취할 때 ‘-스럽-’은 ‘X는 Y스럽다’가 ‘X가 Y는 아니다’를 전제하여 ‘선행 어기의 속성에 가깝게 접근했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답₁-’과 좋은 대조를 보인다. 즉 앞에 제시한 (4가, 나)의 ‘그 아이는 어른스럽다’, “^가그 어른은 어른스럽다’와 “^나그 아이는 어른답다’, ‘그 어른은 어른답다’를 보면, 그 선행 어기가 사람 명사인 경우 그 문법성이 서로 다름이 확인된다. 이는 ‘-답₁-’이 ‘-스럽-’과 반대로 ‘X가 Y이다’를 전제하여 ‘선행 어기가 갖추어야 할 자격이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때 ‘-답₁-’은 어기가 가진 속성 가운데 가치 있는 요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주체의 태도가 들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스럽-’은 부분적으로 ‘X와 같이 못났다’ 또는 ‘X의 자격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거나(송철의(1977)), [+미흡성]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심재기(1982)). 이와 관련하여 ‘X-스럽다’ 신조어를 살펴보자.

(10) 가. 영삼스럽다(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지나친 공상에 빠져 있다)

가. 늙현(노무현)스럽다(상식과 원칙을 멋대로 바꾸는 사람/항상 자기 발길로 가서 안타까운 데가 있다)

가. 인제스럽다(자신이 약속을 어겨 놓고 거꾸로 역정을 내는 면이 있다)

가”. 몽준스럽다(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면이 있다./별생각이 없는데 있는 척 하는 면이 있다)

가””. 부시스럽다(자기 맘대로 악을 선이라 우기고 선을 악으로 몰아세우는 면이 있다/남의 바른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면이 있다)

가””. 병렬스럽다(제 무지·무식·무능력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데만 치중하는 면이 있다/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 점수만 깎아먹는 면이 있다)

나. 오노스럽다(비겁하여 정정당당하지 못한 면이 있다)

다. 검사스럽다(논리 없이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는 면이 있다/학변과
학벌을 들이대며 사람을 깎아내리는 면이 있다/제것은 안 주면서
남의 것을 빼앗기를 좋아하는 면이 있다)

다. 교사스럽다(자기는 안 지킬 약속을 학생에게 요구하는 면이 있다)

다. 패널리스럽다(질문 하나 하는 데도 잘난 척하려고 장황한 사족을 붙
이는 면이 있다/윗사람에게 말이 많다고 대드는 면이 있다)

위의 예들은 모두 사람 명사가 어기인 경우로 ‘-스럽-’의 의미를 충
실하게 또는 과도하게 적용하여 그 대상을 비하하는 의미로까지 확대
한 것들이다. 특히 (10가, 나)류는 ‘-스럽-’의 선행 어기가 정치인이나
대통령, 운동 선수의 이름으로 고유명(사)인 경우인데, 고유명(사)는 그
자체로 명사구를 이루기 때문에(김인균(2002: 46-9)) 명사와 어근 즉 단
어를 어기로 취하는 ‘-스럽-’이 붙어서 만들어질 수 없는 형용사들이
다. 즉, 이들 선행 어기는 ‘-답-’이라면 결합이 가능한데, 그 선행 어기
의 속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주체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집중된 경우라 파악된다. (10다)류는 ‘-스럽-’의 선행 어기
가 명사로 가능한 형용사이나 (10가, 나)류와 같은 주체의 의도가 들어
간 사례들이다. 이는 현대 한국어에서 ‘-스럽-’의 생산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¹¹⁾

11) 이 외에도 구글(Google) 검색 엔진과 박용찬 외(2003)에서 확인한 예로 ‘국회스럽
다, 한나라당스럽다, 금발스럽다, 방송위원회스럽다, 일본 영화스럽다, 정형외과스
럽다’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스럽-’이 사물 명사를 어기로 취하는 신조어로 일
반적으로 ‘-스럽-’의 의미와 용법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휘들이다. 이

결국 ‘-스럽-’, ‘-답₂-/-롭-’, ‘-답₁-’은 그 생산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각각의 의미 영역을 가지고 현대에도 형용사(단어) 또는 구적 구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스럽-’은 ‘-답₂-/-롭-’과 의미 차이가 없이 동일한 어기를 취하기도 하고 ‘-롭-’이 결합하여도 무방한,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기도 하여 그 생산력이 눈에 띈다. 또한 현재 ‘-답₁-’과 마찬가지로 고유명(사) 즉 명사구를 어기로 취하여 ‘-답₁-’ 파생형과 좋은 대조를 보이는 것도 그 생산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¹²⁾

3. ‘-스럽-, -답-, -롭-’ 접미사와 파생 형용사의 교육 방안

우리는 앞에서 ‘-스럽-’은 ‘선행 어기의 속성에 가깝게 접근했음’을 의미하고 ‘-답₂-/-롭-’은 ‘선행 어기의 속성이 풍부함’을 의미하며, 이 두 접미사들이 공히 선행 어기에 대하여 주체가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양태적 의미를 내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 ‘-스럽-’과 ‘-답₂-/-롭-’은 의미와 기능이 공유되는 특성을 많이 가져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지니면서도 그 차이도 분명 보여 별개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람 명사를 어기로 취하는 ‘-스럽-’의 경우, 어기가 가진 속성 가운데 가치 있는 요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주체의 태도가 들어 있는 ‘-답₁-’과 달리 부정적인 면에 주체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집중되는 성격이 강함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럽-’, ‘-답₂-/-롭-’, ‘-답₁-’과 그 파생형을 어

또한 ‘-스럽-’이 과도하게 적용된 경우라 하겠다.

12) 이러한 ‘-스럽-’을 ‘-답-’과 마찬가지로 그 선행 어기의 성격 및 생산성을 고려하여 ‘-스럽1-’과 ‘-스럽2-’로 구별하여 기술할 수 있는지는 더 연구해 보아야 한다.

떻게 교육하여야 하는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교육하는 데 있어 위에서 살핀 내용을 어떠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이 장에서 할 일이다.¹³⁾

우선, 근본적으로는 어휘 교육 및 문법 교육을 하고자 할 때 그 어휘 및 문법 형태가 교육할 가치가 있는지 또는 학습자에게 어렵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함은 물론이다. 즉 교수자는 교육할 항목의 빈도와 난이도 및 실용성과 효율성, 학습자의 수준·요구·흥미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위의 ‘-스럽-’, ‘-답₂-/-롭-’, ‘-답₁-’과 그 파생형은 일부 예를 제외하고는 고급 단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교육해야 할 어휘·문법 교육 항목이라 할 수 있다.¹⁴⁾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이들은 그 접미사이든 파생형이든 유의어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접미사 및 어휘에 대하여 간단히 그 내부의 분포와 의미 및 상관관계를 언급함으로써 만족스러운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즉 문법적인 설명을 요하는 이들 접미사와 그 결합 형태에 대한 교육이 일반 학습자, 특히 초·중급 단계의 학습자들에게 매우 어렵게 다가오고 지나치게 문법 지식을 강요하게 되므로 마땅히 피해야 한다. 따라서 초·중급 단계에서는 빈도의 우위를 보이는 일부 파생 형용사를 중심으로 각 접미사들이 사용되는 다양한 상황과 문맥을 제시하면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들 교육

13) 재차 스스로 인정하는 바, 아래 교육 방안은 추상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어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한 교수 요목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실제적이고도 경험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방법·방안이 나오리라 기대해 본다.

14) 박영순(2001: 68-69)에서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학습에서 (넓은 의미의) 문법 분야를 56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모형을 제시하면서, 제4단계에서 한국어의 조어법 원리를 교수·학습하고 제5단계에서 접사와 여러 단어를 제시하고 파생어와 합성어를 만들어 보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내용은 교수자와 고급 학습자에게 문법 지식으로서 유용한 것이므로 확실히 그 특징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교육 효과 면에서 월등하다 하겠다. 결국 이들 교육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단계별 수용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사실 의사소통 중심과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 통합교과 교육을 강조하는 현재의 한국어 교육 풍토에서는 초·중급 단계의 학습자에게 이들 파생형과 접미사를 명시적으로 교육하는 것보다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가운데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고급 단계의 학습자는 그 접미사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더 빠르고 쉽게 이들 접미사와 그 결합형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학습자 스스로 각각의 접미사 의미를 탐구하고 각각의 유사 표현을 비교·대조하는 등 적극적인 학습 활동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이들 접미사와 선행 어기를 분리하여 교육하는 것과 전체 어휘를 통째로 교육하는 것 중 어떠한 경우가 더 효용성이 있는지 그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한 단어로 제시할 때와 이들을 분리하여 제시할 때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학습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 접미사와 선행 어기를 따로 떼어 교수하거나 그 전체 어휘를 교수하거나 상관없이 모두 각각의 형태에 대하여 변별적인 의미가 제시되어야 하는 데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접미사든 파생형이든 공히 의미가 추상화되어 차별화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적으로 교육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귀납적인 교수 방법과 연역적인 교수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응용할 필요가 있다.¹⁵⁾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중급 단계의

15) 민현식(2003: 133-134)에서는 문법 교육에서 가장 기본적 모형으로 귀납법적(inductive) 교수 모형과 연역법적(deductive) 교수 모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먼저

학습자에게는 이들 접미사에 관련된 문법 규칙과 용어 및 그 특징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전자의 방법이 적절하다 할 수 있으며, 고급 단계의 학습자에게는 이 모든 문법 지식과 파생 형용사를 명시적으로 제시·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후자의 방법으로 교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본고의 형용사 파생 접미사류와 그 파생형을 어떻게 교수·학습하여야 하는가?

먼저 접미사 ‘-스럽-’, ‘-답₂-/-롭-’과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 형용사는 앞 (1), (2), (3)에서 제시한 예들만 보아도 교육 대상으로서의 개수는 매우 한정적이다. 그러므로 초·중급 단계에서는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가운데 아래에 제시한 형용사를 중심으로 전체 어휘를 통째로 제시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⁶⁾ 특히 현대 한국어에서 ‘쑥스럽다/아름답다/괴롭다, 외롭다, 새롭다, 날카롭다, 까다롭다, 번거롭다’

언어 자료를 제시하고 규칙을 귀납적으로 도출하게 하여 (한)국어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전자이며, 후자는 규칙을 먼저 연역적으로 제시하고 제시된 언어 규칙에 따라 언어 오용 예방 또는 교정 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방법이다.

16) 아래 (11)의 예들은 (1), (2), (3)의 예와 함께 임흥빈 외(2002)의 150만 어절 ‘형태소 분석 말뭉치’에서 추출한 예를 참고한 것이다. 임흥빈 외(2002: 296-298)에서 출현 빈도에 따라 제시한 ‘-롭-’, ‘-스럽-’ 파생어 중 빈도수 10 이상인 예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i) 가. ‘-롭-’ 파생어: 새롭다, 자유롭다, 외롭다, 괴롭다, 날카롭다, 까다롭다, 평화롭다, 흥미롭다, 슬기롭다, 예사롭다, 해롭다, 순조롭다, 번거롭다, 대수롭다, 풍요롭다, 공교롭다, 위태롭다, 신비롭다, 감미롭다, 이롭다, 향기롭다, 조화롭다, 다채롭다, 지혜롭다, 상서롭다, 단조롭다

나. ‘-스럽-’ 파생어: 자연스럽다, 자랑스럽다, 조심스럽다, 고통스럽다, 갑작스럽다, 의심스럽다, 새삼스럽다, 걱정스럽다, 만족스럽다, 다행스럽다, 부담스럽다, 혼란스럽다, 짜증스럽다, 통명스럽다, 쑥스럽다, 성스럽다, 곤혹스럽다, 신비스럽다, 사랑스럽다, 고급스럽다, 자유스럽다, 원만스럽다, 우스꽝스럽다, 정성스럽다, 요란스럽다, 뻔뻔스럽다, 불만스럽다, 혐오스럽다, 이상스럽다, 유감스럽다, 사치스럽다, 장난스럽다, 부자연스럽다, 감격스럽다

등은 어기와 접미사를 분리해 설명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경우이므로 더더욱 그러하다.

- (11) 가. 갑작스럽다, 걱정스럽다, 고급스럽다, 고통스럽다, 다행스럽다, 만족스럽다, 부담스럽다, 사랑스럽다, 새삼스럽다, 송구스럽다, 쑥스럽다, 원망스럽다, 자랑스럽다, 자연스럽다, 조심스럽다, 의심스럽다, 짜증스럽다, 촌스럽다, 혼란스럽다

나. 아름답다, 정답다, 참답다

다. 괴롭다, 까다롭다, 날카롭다, 대수롭다, 번거롭다, 새롭다, 순조롭다, 슬기롭다, 예사롭다, 외롭다, 이롭다, 해롭다, 자유롭다, 평화롭다, 흥미롭다

그러나 고급 단계의 학습자에게는, 어기와 접미사 공히 의미가 추상화되어 차별화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따로 구분하여 파생어임을 교수하는 것이 더 빠르고 쉽게 해당 어휘와 문법을 이해하고 학습자 스스로 문법 항목의 의미와 용법을 탐구하여 더 많은 파생 어휘를 이해·형성하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이들 접미사와 파생형은 앞에서 살펴본 분포와 의미, 상관관계 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상황과 문맥을 모두 고려하여 교수·학습할 필요가 있다. 즉 각각의 유사 표현을, 의미·용법·맥락 등을 비교·대조함으로써 학습자는 접미사뿐만 아니라 그 파생형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례로 어기와 접미사를 분리하여 설명하든 분리하지 않고 설명하든 교수자는 아래 (12)의 예들을 통해 여러 상황을 설정하여 각 단계의 학습자가 스스로 ‘-스럽-’, ‘-답₂-/-롭-’ 또는 그 파생형의 의미, 용법 및 상관관계 그리고 문맥을 어려움 없이 파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2) 가. 냉정하다/냉정스럽다, 다정하다/다정스럽다

나. 정교하다/정교롭다, 건조하다/건조롭다

다. 한가하다/한가스럽다/한가롭다, 신비하다/신비스럽다/신비롭다, 인자하다/인자스럽다/인자롭다

라. 평화롭다/평화스럽다, 자유롭다/자유스럽다, 자비롭다/자비스럽다, 수고롭다/수고스럽다, 호화롭다/호화스럽다((7)의 일부)

랴. 참되다/참답다/참스럽다

한편, 단어인 ‘-답₂’ 파생형과 구적 구성인 ‘-답₁-’ 형태를 한국어 교육에서 나누어 교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찰도 있어야 한다. 한국어 교수·학습 현장에서 문법 교재로 쓰이고 있는 임호빈·홍경표·장숙인(1997)과 박영순(2001)에서는 각각 ‘학생답다, 여자답다, 군인답다, 신사답다, 교육자답다’, ‘대장부답다, 사람답다, 어머니답다, 정치가답다, 학자답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예는 우리의 논의대로라면 ‘아름답다, 정답다, 참답다’ 등의 ‘-답₂’ 파생 형용사와 달리 ‘-답₁-’ 파생형으로 진정한 형태론적 구성이 아니다. 이러한 문법적인 지식이 한국어 교육에도 반영되어야 하는지는 교수자가 확실히 그 차이를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 학습자 단계별로 적용의 폭을 조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초·중급 학습자에게는 ‘-답₁-’과 ‘-답₂’의 문법적인 차이와 그 파생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고급 학습자에게는 ‘-답₁-’의 특징을 위 (6)과 같은 예들을 제시하여 ‘-답₂’와 다른 의미와 용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때 ‘-답₁-’과 그 파생형은 ‘그 아이는 어른스럽다’, ‘*그 어른은 어른스럽다’, ‘그 아이는 바보스럽다’와 ‘*그 아이는 어른답다’, ‘그 어른은 어른답다’, ‘*그 아이는 바보답다’처럼 선행 어기가 사람 명사인 ‘-스럽-’과 대조하면서 그 문법성이 서로 다른도 교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들 형용사 파생 접미사와 그 결합형에 대한 지금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교수 요목화하여 가르칠 것인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이들 교육 내용에 대해 강구할 수 있는 교수 요목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⁷⁾

(13) 형용사 파생 접미사 ‘-스럽-’, ‘-답-’, ‘-롭-’과 파생 형용사 교수 요목(1-4단계)

가. 1-2단계: ① 한국어 교육 기본 어휘 중 ‘-스럽-’, ‘-답-’, ‘-롭-’ 파생 형용사를 확인한다.(교육용 용례 제시: 걱정스럽다, 아름답다, 괴롭다, …(본고 (11)에 제시한 항목))

② 위의 기본 형용사를 통째로 학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서서히 분석이 가능한 형태를 통해 접미사 ‘-스럽-’, ‘-답-’, ‘-롭-’을 확인한다.(교육용 용례 제시: 쑥스럽다, 아름답다, 괴롭다, …/걱정스럽다, 정답다, 자유롭다, …)

③ ‘아름답다, 정답다, 참답다’와 ‘학생답다, 여자답다, 대장부답다’ 등을 구분하지 않고 학습한다.

나. 3-4단계: ① 현대 한국어에서 접미사 ‘-스럽-’, ‘-답-’, ‘-롭-’이 많은 형용사를 만들어 낚을 확인한다.(교육용 용례 제시: 본고 (1), (2), (3)에 제시한 항목)

17) 아래는 본고에서 다룬 접미사와 파생형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을 어떻게 단계별로 위계화·세목화하고, 학습자 단계별로 어떻게 위계화할 것인가의 교수 요목을 대강 제시한 것이다.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본고의 파생 형용사들을 ‘사용 어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지 ‘이해 어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지 분명치 않다고 지적해 주셨다. 앞에서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초·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를 구분하면서 논의를 이끌어 왔고 간략하게나마 아래 (13)에 교수 요목을 제시한 것이다. 사용 어휘, 이해 어휘 구분은 결국 학습자 단계에 따른 것으로, 본고 (11)에서 제시한 파생 형용사들은 전(全) 단계 학습자에게 사용 어휘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외의 파생 형용사들은, 더 자세히 빈도를 고려하여 제시해야 하겠지만, 초·중급 학습자에게는 이해 어휘, 고급 학습자에게는 사용 어휘일 수도 있고 이해 어휘일 수도 있을 것이다.

② ‘-하다’ 형용사와 대조하거나 각각의 접미사를 비교·대조하여 그 의미와 분포를 탐구한다.(교육용 용례 제시: 냉정하다/냉정스럽다, 정교하다/정교롭다, 신비하다/신비스럽다/신비롭다, 어른스럽다/어른답다...(본고 (4), (5), (12가, 나, 다)에 제시한 항목))

③ 각각의 접미사가 동일한 어기에 결합하는 경우의 특징을 탐구한다. (평화롭다/평화스럽다, 참답다/참스럽다, ...)(교육용 용례 제시: 본고 (7), (8)에 제시한 항목)

다. 4단계(심화 학습): ① ‘-답1-’과 ‘-답2-’의 차이점을 이해한다.(교육용 용례 제시: 아름답다, 정답다, 참답다, .../학생답다, 여자답다, 대장부답다, ...)(본고 (6)에 제시한 항목)

② ‘-스럽-’의 높은 생산성 및 확장된 용법을 이해한다.(교육용 용례 제시: 경사롭다/경사스럽다, 참답다/참스럽다, 간사스럽다, 바보스럽다, 영삼스럽다, 검사스럽다, ...)(본고 (7), (8), (9), (10)에 제시한 항목)

위 (13)에서 제시한 1-4단계들, 앞선 논의와 박영순(2001) 등을 참조하여, 현행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편성되는 학습자 집단 초급(1·2급), 중급(3·4급), 고급(5·6급)에 따라 재차 분류해 보면, (13가)의 1-2단계는 초급(1·2급)과 중급(3급)에서 요구되는 교수 요목이 될 것이다. 그리고 (13나)의 3-4단계는 중급(4급), 고급(5·6급) 교수 요목이며, (13다)의 4단계(심화 학습)는 고급(6급)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수 내용일 것이다.

4. 결론

본고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교육 및 문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그 일환으로 지금까지 주목을 받지 못한 파생어휘에 대한 교수 내용 중 형용사를 만드는 파생 접미사 ‘-스럽-, -답-, -롭-’과 그 파생형에 대하여 먼저 국어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이는

우선 한 언어의 효율적인 어휘 교육은 그 어휘에 대한 의미와 형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가 밑에 깔려 있다. 또한 단일어 중심의 연구 방법론, 교수법에서 탈피하여 어휘 형성(확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한국어 교수자와 학습자의 어휘 지식과 문법 지식 및 교수 내용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필자의 믿음과 바람이 깊이 들어 있다. 한편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이들 파생 접미사류와 그 결합형에 대하여 강구할 수 있는 교육 방안 및 교수 요목을 제시해 보았다.

근래 들어 한국어 어휘 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등장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그 연구 성과는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더욱 다양한 분야의 어휘 교육 연구가 절실하다. 즉 본고에서 다룬 파생어뿐만 아니라 합성어 곧 조어법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그 교수 내용과 방법론 연구가 있어야 하며, 유의어·반의어·다의어·상의어·하의어·동음이의어·존대어·비속어·의성의태어 등에 관한 교수 내용 및 교수법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어휘·통사·의미론 부문과 관련해서 언어 구성, 관용 표현, 속담 등에 대한 교육 내용과 방법론 연구도 필요하리라 본다(조현용(1999)). 한편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찬반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작금의 현실에서 이러한 단편적인 연구를 통하여 문법 교육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얼마나 유용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한다. 결국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법 교육은 축적되어 있는 국어학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하면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필요에 맞게 가공되고 응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국어학과 한국어 교육학이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첨병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국, 『조선어 접미사의 통시적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1993.
- 강현화, 「빈도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의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제12권 1호, 2001. 1-17쪽.
- 구본관,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태학사, 1998.
- _____, 「파생접미사의 범위」, 『형태론』 1-1, 박이정, 1999.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 국어 대사전』, 두산동아, 1999.
- 김광해,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박이정, 2003.
- 김인균, 「국어의 명사 연결 구성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김창섭, 「형용사 파생 접미사들의 의미와 기능」, 『진단학보』 58, 1984. 145-162쪽.
- _____,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1996.
- 민현식, 「-스럽다, -롭다' 접미사에 대하여」, 『국어학』 13, 1984. 95-119쪽.
- _____, 「한국어 교육에서의 정서법 교육에 대하여」, 『한국어교육』 제11권 1호, 2000. 1-23쪽.
- _____, 「국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상관성」, 『한국어교육』 제14권 2호, 2003. 107-141쪽.
- 박영순, 『한국어 문법교육론』, 박이정, 1998.
- _____,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월인, 2001.
- 박용찬 외, 『2003년 신어』, 국립국어연구원, 2003.
- 방성원, 「고급 교재의 문법 내용 구성 방안」, 『한국어교육』 제14권 2호, 2003. 143-168쪽.
- 송철의, 「파생어형성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38, 1977.
- _____,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1992.
- 심재기, 『국어어휘론』, 집문당, 1982.
- 안병희, 『15세기 국어의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1978.
- 이기문, 『국어사 개설(개정판)』, 민중서관, 1972.
- 이현규, 「접미사 '-답다'의 형태, 구조, 의미 변화」, 『국어학논총(공포 조규설 박사 화갑기념논총)』, 1982.

- 임호빈 · 홍경표 · 장숙인, 『신개정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7.
- 임홍빈 외, 『국어 문법 현상의 계량적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 정호성 · 김인균 · 이은정, 『주요 어휘 용례 수집 및 정리-형용사편-』, 국립국어연구원, 2001.
- 조남호,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2003.
- 조현용, 「한국어 어휘의 특징과 어휘교육」, 『한국어교육』 제10권 1호, 1999. 265-281쪽.
- 조현용, 「어휘 중심 한국어 교육방법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하치근, 『국어 파생형태론(증보판)』, 남명문화사, 1993.
- 허 응,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1975.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Korean Derivatives for the International Korean Education

– Focusing on ‘-seureop-’, ‘-dap-’, ‘-rop-’ derivational adjectives

Kim, In-Kyu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International Context 31. Vocabulary is the major tool in communication. But in Korean as a Foreign/Second Language Education we have not prepared any basic rules for teaching vocabularies and given attention to it actually in present. Therefore we need to look at the education methods and contents of Korean vocabulary. As a part of them this study aims to discuss teaching contents and methods of Korean word formation, focusing on adjective suffix, ‘-seureop-’, ‘-dap-’, ‘-rop-’. Suffix, ‘-seureop-’, ‘-dap-’, ‘-rop-’ form derivational adjectives with each proper meaning relatively productively in Modern Korean. And because of having an interrelation with meanings reciprocally they can combine with same bases. Especially, because of great productivity ‘-seureop-’ put in position which another suffixes are used in Modern Korean. As educators teach these contents, they have to consider learner levels. So I present teaching contents and methods in each grade, and propose a syllabus.

* The National Academy of the Korean Language

주제어

어휘교육, 문법 교육, 교수 내용, 교수 방안, 교수 요목, 형용사 파생 접미사, 생산성, 의미 상관관계, 파생어휘, 한국어교육

vocabulary education, grammar education, teaching contents, teaching methods, syllabus of lecture, adjective suffix, productivity, meaning interrelation, derivational word, International Korean education

이 논문은 2004년 6월 30일 접수되어 8월 4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